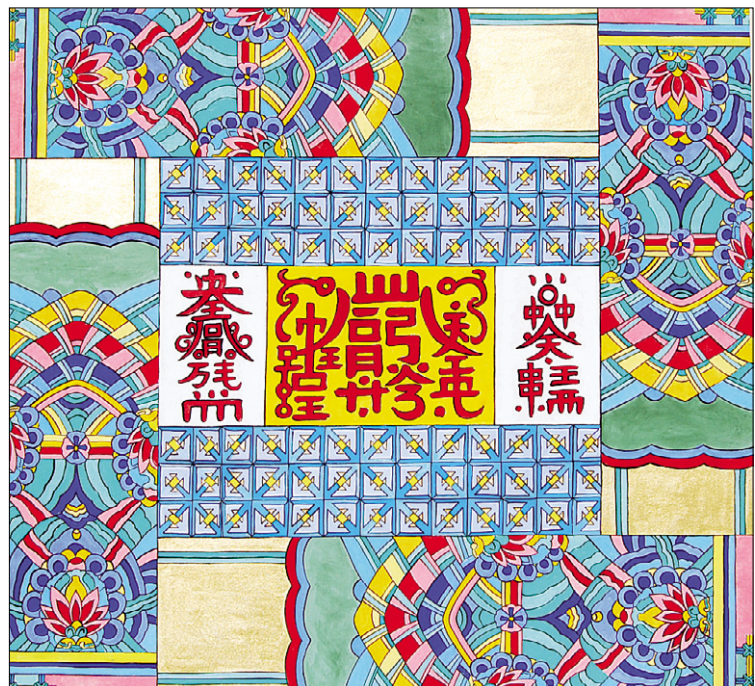


108배 하며 업·인연 녹인 만다라

김인섭 화백 '길상만다라전' 불일미술관서 5월 7일까지



김인섭 화백은 부처님의 진리와 법을 문자와 진언 등으로 표현한 다르마 만다라 유형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업’과 ‘인연’은 증상을 웃고 울게 한다. 김인섭 화백에게 어떤 인연을 짓는가에 따라 업이 달라지고, 미래 삶이 달라진다는 불교의 논리는 화두였다. 김 화백은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 맺은 후부터 자신을 채운 ‘업’과 ‘인연’을 만다라로 형상화하며 비워내기 시작했다. 만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한 불화(佛畵) 가운데 하나이다.

만다라는 2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 온 김 화백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 방법이다.

김인섭 화백은 “‘업’과 ‘인연’을 마음 한 자락에 늘 두고 수행 지침으로 삼아왔다”며 “그 계기로 동양철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개개인마다 타고난 오행의 규칙 속에 자신의 인연 북이 들어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명리학에선 우주의 기운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인간이 태어나 첫 호흡을 하는 순간부터 오

행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본다. 김 화백은 이런 오행의 작용에 의해 본인의 마음상태도 정해지고 오행의 변화로 인해 마음이 영향을 받아 좋은 운일 때는 좋은 결론을, 나쁜 운일 때는 나쁜 결론을 자기 스스로 내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한다.

김 화백은 “불교의 만다라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불교수행의 최고선(最高善)을 색과 공간성을 바탕으로 형상화한 것임을 알게 됐다”며 “연구를 거듭할수록 만다라 작품이 사람들의 마음 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인섭 화백의 만다라는 부처님의 진리와 법을 문자와 진언(眞言) 등으로 표현한 다르마 만다라의 유형을 띠고 있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김 화백이 표현한 문자는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천·지·인 삼재의 표현과 유사하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동아시아의 특별한 문자 형상으

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연화 문양으로 장엄했다”고 설명했다.

만다라는 수행의 결실을 문자의 형상으로 표현하지만 그 속에는 보편적 진리의 모습도 함께 그려낸다. 만다라를 내걸어 공간을 장엄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청정국토임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청정법신(淸淨法身)을 구현하기 바라는 서원의 표현이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실천하겠다는 원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김인섭 화백은 “이번에 전시되는 만다라 작품 하나 하나는 독경과 108배로 나를 맑히고, 온 정성을 다해 완성한 것들”이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만들어 ‘선근종자(善根種子)로 거듭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중생의 간절한 마음공부와 수행의 결실이 만들어낸 만다라는 서울 불일미술관에서 5월 7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02)733-5322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전제우 작가는 히말라야 순례길에 만난 인도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냈다.

제로 열리는 전시회는 전제우 작가(한국불교사진연구소 소장)가 달라이라마 제14대 창전 스님과 그의 인도여행을 기록한 사진들이다.

전제우 작가는 히말라야의 천년의 비경을 필름에 담은 작품들에는 때 묻지 않고 순수하게 살고 있는 인도 사람들의 모습과, 히말라야 오지에 자리한 곱빼(사찰)를 순례하면서 경험했던 아름답고 신비한 자연과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전제우 작가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번 사진전이 또 다른 오지의 부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이라고 말했다.

東大 정각원 히말라야 사진전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타)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동국대 교정에서 히말라야 사진전을 개최한다. ‘청전스님과 함께한 히말라야 신비의 불교성지 라막’을 주

전제우 작가의 사진전은 5월 11-21일 동국대 교정 코끼리 상 주변에서 전시된다.

이은정 기자

조계종 신작 찬불합창곡 악보집 발간

조계종단 최초로 신작 찬불가 합창곡 악보집이 발간돼 불자들의 음성공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효탄)는 최근 신작찬불가 합창곡 악보집을 발간했다. 이번 신작찬불가 합창곡 악보집은 종단차원에서 합창단과 불교 음악인들이 함께 이룩한 음악불사이다.

신작찬불가 합창곡은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귀린)와 불교음악예술원(원장 이달철)이 함께 참여했다.

문화부장 효탄 스님은 “그동안 불교음악 창작에 있어서 1990년대 초반 불교방송국에서 창작찬불가 100곡 제작 사업 이후로 이렇다 할 진전이 거의 없었다”며 “불교음악의 미래를 위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작찬불가를 개발해 나가고 합창단 사업을 추진하고자 종단차원에서 신작찬불가 합창곡 개발과 함께 악보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찬불가는 대중들에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운문 스님(삼보불교음악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불교문화계의 스님·시인들을 위촉했다.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는 노랫말 공모전을 개최해, 수상자인 김선경(의정부 회룡사합창단)의 ‘묵묵’과 성음숙(창원 구룡사)의 ‘중생의 빛 관세음보살님’을 악보집에 함께 실었다.

불교음악예술원 이달철 원장은 “이번 신작 찬불가 합창곡 개발로 인해 불교음악의 발전 동기를 마련하고 찬불가에 대한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2010년 불교합창페스티벌과 전국불교합창제에도 사용돼, 신작 찬불가 합창곡이 널리 불려 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이름다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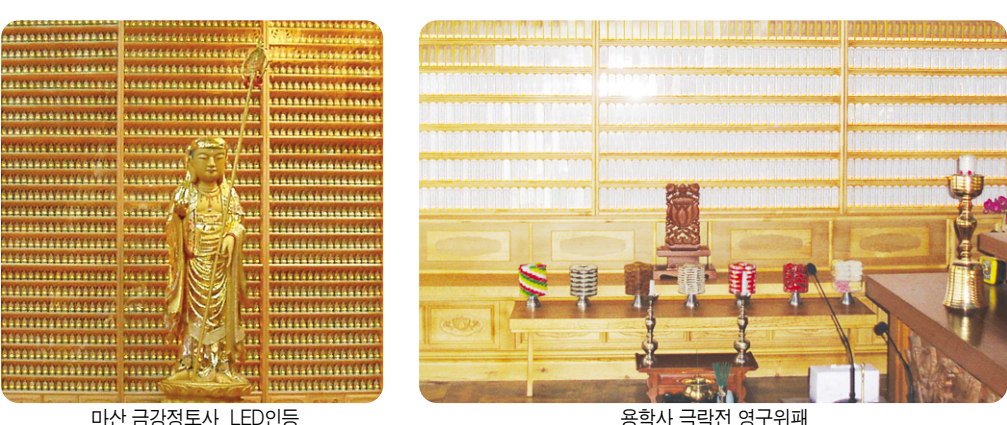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전선(케이ابل)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ابل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오색공단등 판각케이ابل전등



주름등 칼라(보카시)연등



공 단 등 영 가 등 키오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광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